

중견기업계, 국정기획추 정책 과제 전달

“중소 → 중견 → 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시급”

중견련, 회복·성장 중심 정책 제언
세액공제 등 현장 체감형 대책 주문
“李 정부, 기업 활력 되살려주시길”

중견기업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관련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혁신 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투자 활력 제고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경제안보 강화 ▲노동 시장 선진화 ▲지속가능 경영 환경 조성 ▲규제 개혁 ▲기업가 정신 고취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이 두루 담겼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호준 상근 부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지난 30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왼쪽)은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선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의 혁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육

성 기반을 강화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경제의 ‘허리’로서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면서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신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확대 등 중견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원 단절과 규제 확대로 스스로 성장을 철회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일소할 정책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출의 18.7%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실용’에 입각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 내수 회복 등 정부 출범 이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과감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제·산업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균형 잡힌 해법,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민생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 CNS

‘애저 AI’ 기술역량 입증

AX(인공지능 전문 기업 LG CNS(대표이사 사장 현신균·사진)는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애저(Azure) 기반



인공지능(AI)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마이크로소프트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기반 AI 애플리케이션 설계·구축·운영 사업 성과와 기술력에 대한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고객 성공 사례 등의 기준을 충족한 파트너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의 생생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한 LG CNS는제조·금융·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애저 오픈AI ▲애저 AI 서비스 ▲애저 앱 서비스 등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SK AX

탄소 데이터 지원 서비스

SK AX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한국 제조 기업을 위한 ‘탄소 데이터 대응 통합 지원 서비스’를 내놴했다고 31일 밝혔다.

SK AX는 민감한 정보 보호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합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탄소 데이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SK AX는 검증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EU 규제에 대응하고, 한국형 데이터 생태계와도 연계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SK AX는 ▲제품 단위 DPP 데이터 설계 ▲민감 정보 보호 체계 ▲국제 표준 정합성 확보 ▲이력 추적 솔루션 및 시스템 등 전사적 ESG 데이터 전략 수립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T

‘기가 오피스 N’ 출시

KT는 중소기업의 IT 인프라 환경을 통합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KT 기가 오피스 N’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가 오피스 N’은 최대 10Gbps의 기업용 고속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KT의 기존 상품으로, 이번에 ‘기가 오피스 N’으로 고도화되며 서비스형 네트워크(NaaS) 형태로 전환됐다.

기가 오피스 N의 핵심은 회선 속도를 일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 기업은 업무 상황이나 트래픽 수요에 따라 200Mbps부터 2Gbps까지 원하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적 수요 증가 시에도 별도 계약 변경 없이 포털에서 실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KT는 오는 9월부터 회선 대역폭 조정,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XAI’ 미래 먹거리 부상… 중소기업 육성해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2034년 글로벌 시장 65조 전망
“신규정책 사전영향 진단 필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XAI)’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육성 등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1일 펴낸 ‘KOSI 이슈나포커스-설명 가능한 AI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XAI를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술, 비즈니스 분야로 인식하고 XAI 이행 기반 강화와 전문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AI를 활용한 중소기업 위기관리 모형 고도화, 신규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 진단 필요성 등도 제언했다.

‘XAI’는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

〈XAI 시장 규모 예측〉

연도	시장 규모
2024	910
2025	1,351
2026	2,005
2027	2,975
2028	4,415
2029	6,552
2030	9,724
2031	14,430
2032	21,414
2033	31,779
2034	47,160

단위:백만달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력이자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방법을 말한다.

중기연구원은 시장 자료를 인용해 XAI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약 6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국내·외에서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설명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 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 투명성, 설명 가능성에 대한 관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XAI에 대한 논의와 적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제조, 금융과 더불어 도소매, 무역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XAI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고객사의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정부 운영

과 공공 정책 혁신을 위해 XAI를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XAI에 대한 지속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의 빠른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전문기업 육성 ▲중소기업 위기관리모형 고도화 ▲이행 기반 강화 ▲신규 정책의 잠재적 영향 진단 툴 확보 등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선 특히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도 기업 발굴 및 선별적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며 “아울러 XAI를 적용해 신규 정책 설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가능할 수 있는 진단 도구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정부, 기업 등에게 정책 수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SNS 중독’ 피해 급증… 플랫폼업계, 보호기능 등 대응책 강화

청소년 자살행동 위험 최대 2.4배
AI 기반 연령 판별기능 등 도입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이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IT 플랫폼 업계가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책임 이행과 정부 차원의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IT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웨일코넬 의대와 캘리포

니아대 공동 연구팀은 국제 의학 학술지 ‘자마(JAMA)’에 발표한 논문에서 “SNS 사용이 중독 수준에 이르거나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한 청소년의 자살 행동 위험이 최대 2.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중독에 대한 위기의식은 뚜렷하다. 사단법인 중독포럼이 전국 10대~50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를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SNS 중독에 대한 우려는 91.2%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주요 플랫폼 기

업들도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틱톡은 이달부터 보호자가 자녀의 콘텐츠 게시, 다운로드 설정, 팔로우 목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자녀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도 적용됐다.

유튜브는 AI 기반의 연령 판별 기능을 미국에 시범 도입했다. 사용자 검색 기록, 시청 콘텐츠, 이용 시간 등을 종합 분석해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고, 휴식 알림 및 부적절 콘텐츠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메타는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을 활

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허위 나이를 입력한 10대 계정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보호 기능이 적용된 ‘틴 계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I는 생일 게시물, 이용 패턴,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해 성인으로 가장한 청소년 계정을 식별하며, 틴 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낮은 사람과의 메시지 차단, 부적절 콘텐츠 제한, 부모 동의 등의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라·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정부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와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 조치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공공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